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_g/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26년 6월 7일)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1코린 10,17)



성체성사의 승리 작가 미상 16세기 이탈리아 26.6 x 17.7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 목판화 작품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두 천사의 부축을 받으며 성배 위에 서 계시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목판화와 Chiaroscuro(명암) 판화가 담긴 스크랩북에 수록되어 있던 것이었으나 그 스크랩북은 1922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인수할 당시에 해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 컬렉션이 시인 Samuel Rogers(1763~1855)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이후 Angela Coutts(1816~1906)가 그를 기리기 위해 그의 자택에서 열린 컬렉션 경매(1856년 4월 28일~5월 20일)에서 구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요한 6, 55)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카톨릭 성가집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떡과 술의 형상에 164

J. S. Bach



1. 떡 과 술 의 형 상 에 예 수 임 하 시 며
 2. 주 의 축 복 받 으 려 모 인 주 의 백 성
 3. 인 류 구 원 위 하 여 수 난 하 신 주 여



크 신 영 광 떠 나 서 우 리 게 오 시 네
 주 께 영 광 드 리 며 감 사 하 나 이 다
 만 백 성 이 주 님 을 찬 미 하 나 이 다



예 수 여 이 제 대 예 수 의 - 성
 예 수 여 그 말 씀 예 수 의 - 가
 예 수 여 십 자 가 예 수 의 - 가



체 성 혈 사 랑 하 나 이 다
 르 치 심 사 랑 하 나 이 다
 신 길 을 사 랑 하 나 이 다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회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회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51-58)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사도행전 2,1-11 나눔 묵상

■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1절)

- 한자리에 모였기에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NV1)
-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RC2)

■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2절)

- 제 방 안이 하느님의 성령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잡념을 비워내어 성령님 모실 자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NV2)

■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4절)

- 성령묵상회에 참석했을 때 성령으로 가득 차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갈구하다 보면 언젠가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NV1)
- '왜 같은 말을 쓰면서도 생각과 행동은 이렇게 다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다른 이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NV2)
- 성지순례에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기대했습니다. 신앙의 흔적을 직접 보고 나니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TR3)
-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는 경험이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 안에 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TR3)
- 살면서 겪는 불안과 부정적 감정을 혼자 해소하기 어려워, 기도로 성령에 가득 차 빛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RC2)
- 하느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이 어렵지만, 매일 아침 노력하다 보면 성령으로 마음이 가득 차리라 희망합니다. (RC2)
- 예전 성령 체험 모임에서 옆 사람을 따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안에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입이 열려 담대하게 소리가 나며 하나 되는 느낌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소서, 성령님' 기도를 묵주기도 시작 기도로 바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CT)

■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4절)

- 하느님께서 저에게 표현할 능력을 주셨으니, 그 힘을 믿고 다가간다면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NV2)
- 성령이 언어 장벽을 넘어 소통하게 하신 기적을 통해,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 공평하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RC2)
- 같은 언어를 써도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은데, 성령이 임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므로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RC2)

■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4절)

-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시대와 나라를 넘어 전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TR3)
- 각자 다른 말을 쓰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 각자의 언어로 말씀을 전한 것처럼,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느님이 바라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RC2)

■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7절)

-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더 기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NV2)
- 성서 말씀과 성가에서 제 상황에 꼭 맞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함께하심을 느끼며 다시 힘을 냅니다. (TR3)
- 신부님과 성지순례를 다녀오며 사람들이 느꼈던 놀라움이 조금은 이해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하면 얼마나 놀라울까 싶어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TR3)

■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8-11절)

- 같은 한국말을 쓰는 남편과도 각자의 방식대로만 말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V2)
-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도 제 상황에만 맞춰 해석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저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NV2)
- 같은 말씀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과 마음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TR3)
- 언어 표현보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RC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시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셀라성가책 187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받으소서 우리 마음

187

Joseph Wise



받으소서 우리 마음 과 우리 사랑 을 주여우린 당 신의 것



1. 주 님의 식탁에 우리 모여 몸 바친 주의 사랑 기억하리
 2. 목 마른 우리의 굶주림을 주 님의 몸과 피로 채우시니
 3. 주 님의 음성을 우리 듣고 가르친 주의 계명 지키오리



주 님의 살과 피를 받으오니 우린 당 신의 것
 가난한 우리 맘을 드리오니 우린 당 신의 것
 영원한 잔 - 치에 모였으니 우린 당 신의 것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의 여정을 마치며 - 2026년 5월 · 이탈리아 성지순례

미국내 어느 공항을 가도 무조건적으로 렌트카를 타고 공항을 나서는 나의 자유사랑 때문에, 여행의 절반은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즐겨야 완성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가장 큰 이유인 그러저러한 내 잘난 척 때문에, 여러사람과의 단체 여행을 혐오해왔으나 어쩐지 이번에는 그냥 가고 싶었다. 우리 성당에서 가는 이태리 성지순례, 가자 그래.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도 안 남긴 아들이 있기도 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방향도 있었고, 실천도 못하면서 은퇴를 노래하는 안절부절도 함께했다. 갔다오면 더 많이 쌓여 있을 해야 할 일들을 마주할 두려움도 함께. 대충보니 어디어디 성당만 주구장창 방문하는 여행이었다. 카프리 섬이나 amalfi coast, 피렌체나 베니스 같은 멋진 곳은 없었다. 여행에 대한 나의 환상은 제로, 그저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 하나가 나의 기대였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대로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오케이! 그렇게 나는 일행 중에서 모르던 교우들을 많이 만나고 누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이태리 여행 어땠어요? 좋았어요. 도저히 이렇게 한 마디로 응축할 수가 없었다. 일정과 활동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거기에 내 책임은 없었기 때문에 주어지게 되는 또다른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신선했다. 오로지 내 한 몸만 챙기면 되는 자유! 해방이다. 여행 기간 내내 나 혼자서 방을 썼다. 정말 오래간만이야.. 나는 어쩌면 그냥 혼자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었을까. 평생 처음으로 매일매일 미사를 드리고 묵주기도와 삼종기도를 했다. 그렇게 타의로 억지로 종교가 내 삶에 매일 밀려들어오게 되었다. 나는 어쩌면 영적인 어떤 것을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피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걸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던 걸까. 가톨릭에 그렇게 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었는지, 뭐하던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설렁설렁 졸면서, 듣는둥 마는둥 하면서,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계속 여행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배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오 성인의 영성센터에서 눈물이 흐르게 된다. 하느님은 나에게 너무 어려운 분이셔서, 알아듣기 쉽게 우리 엄마를 통해서 오신 것 같다. 드디어 나에게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엄마와 계속 투정과 불평으로 엄마에게 찡찡거리기만 해 온 나의 모습, 알면서도 잔소리 듣기 싫어 일부러 더 엄마 마음을 활퀴던 그런 내가 보였다. 그렇게 하느님은 항상 사랑을 넘쳐 흐르게 부어주시고 계셨던 거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 사랑을 되갚을 수가 없음을 느꼈다. 뭐라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전율과 울림이었다. 하느님 앞에 그저 완전. 한. 복종과 무한한 감사함만 있었을 뿐... 살아 숨쉬는 하루하루가 다 기적이고 은총이었다. 다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나를 본다. 또다시 불안하고 게으르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 익숙함과 당연함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있지만 어쩌면 아주 약간, 아주 조금,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내 마음 속 어딘가에 간직하게 되었다. 예전보다 조금 더 큰 믿음. 그 분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 것인지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선물로 받은 하루 하루를 감사해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 글 | 이소연 마리아

처음 시작은 힘들었지만 큰 탈 없이 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과 순례자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본당 50주년의 주제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와 같이 이번 순례를 지켜보신 하느님께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듯싶네요. — 글 | 김태화 크리스토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 앞에서

기도와 침묵의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언젠가는 담담히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를 조금이나마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순례를 마무리합니다. — 글 | 홍영지 마리아 막달레나

잘 쉬고 계시지요? 많이 힘들었지만 옆에서 도와주신 형제자매님들이 함께해서 여행 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추천으로 산골 속까지 안 가 본 곳을 다 가 보아서 참으로 좋았고, 인상 깊은 신비의 순례길이었습니다. 힘들어할 때 밀고, 당기고, 팔을 내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 글 | 김순자 데레사

란치아노에서 마주한 주님의 생생한 사랑의 흔적과 남부의 아름다운 풍경은 제 삶에 잊지 못할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 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 글 | 김연숙 글라라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모두 무사히 도착하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례 동안 함께 기도하고 웃고 걸으며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이끌어 주신 신부님과 회장님,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받으신 은총이 공동체 안에서 오래도록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며칠 푹 쉬시길 바라오며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 글 | 마리아 투어 박 아네스 사장님

모든 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신 듯합니다. 성지순례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순례 안에서 각자의 귀한 선물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소중한 선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아무쪼록 건강 안에서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 잘 이어나가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 오승수 시몬

5월 13일, 우리는 로마 바오로 대성당에서의 미사로 순례의 문을 열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이번 순례는 기적 종합선물세트와 같다”고 하시며, 기적의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보다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보길 권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 경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서는 십자가 하나만 놓인 프란치스코 전 교황님의 소박한 돌무덤 앞에서 복음적 가난의 영성을 묵상하고, 성 알폰소 마리아 성당에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기적의 성화와 천장의 별 장식을 보고, 저녁에는 스페인 광장, 트레비 분수, 판테온, 나보나 광장을 지나 성 베드로 대성당까지 야경 속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어서 베네딕토 성인의 “기도하고 일하라”는 사상으로 이뤄진 몬테카시노 수도원, 피의 기적이 일어나는 나폴리 두오모의 성 제나로 성지, 폼페이 목주기도 성지, 성 미카엘 대천사 발현 성지, 그리고 비오 신부님의 고향을 거쳐, 란치아노 성체성혈 기적의 성지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아씨시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각자 순례에 오른 이유와 느낀 점을 나누었고,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튿날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에서 고해성사와 전대사의 은총을 받았으며, 시에나에서는 성녀 카타리나의 생가와 성당도 방문했습니다. 볼세나 크리스티나 성당에서는 카타콤베(지하 무덤)를 둘러보고, 성체 기적의 제대 앞에 섰으며, 순례의 마지막 미사로 오르비에토 두오모에서 감사미사 봉헌을 드렸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시작된 순례 길이었지만, 감사하게도 함께하시는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총의 여정이었습니다. — 글 | 윤선호 소화 데레사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 경당에서 미사 후



오르비에토 두오모에서 순례의 마지막 미사를 드린 후